

『靈樞·榮衛生會』漏泄 및 『素問·風論』漏風, 泄風에 對한 研究*

慶熙大學校大醫院 基礎韓醫科學科¹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²

柳姪我¹ · 丁彰炫² **

对于『灵枢·荣卫生会』漏泄 和 『素问·风论』漏风, 泄风的 研究*

柳姪我¹ · 丁彰炫² **

¹慶熙大學 研究院 基礎韓醫學系 · ²慶熙大學 韓醫學系 原典學教室

不久前研討『素問·風論』時討論到有關漏風和泄風的內容. 說明漏風症狀之內容中所看見的‘食則汗出’, 此一句與『靈樞·榮衛生會』所談到的‘人有熱, 飲食下胃, 其氣未定, 汗則出’內容之間, 想到互相應有關係. 而且以‘漏風’及‘泄風’爲名的病, 與『靈樞·榮衛生會』所見的以‘漏泄’爲名的病, 此兩種病名之間覺得該有類似的關係. 所以在本文將會把如下的兩種病之間的關係, 作爲新的課題更深入比較研究, 就是『素問·風論』所見的漏風和泄風, 與『靈樞·榮衛生會』所見的漏泄兩種病. 剛好還有關聯到屬於‘漏風證’的病人臨床病例, 使得病人也能治療同時對於其治法與病之本質也能够有考察, 想進行更深一步的研究. 經如此的探索之後本文獲得如下的結論.

此兩種病之間有很密接的關係, 且都是外感風邪留在體表使得人體熱化, 因此肌肉的腠理開合會失常, 所以津液和元氣由出汗時跟著汗排泄出來的病. 其症狀, 則汗流得多, 衣服濕透, 非常口渴, 沒力氣無法做事, 尤其是會有帶惡風, 身體痛及惡寒. 其中惡風是與其他自汗證區分的特徵, 因爲裏熱進入於筋肉之血分而筋肉很緊張也松弛.

因此其治法, 則補充津液和元氣, 之外使得裏熱放涼, 驅逐扎入於筋肉之熱邪, 而恢復被損傷的肌肉腠理. 漏泄·漏風·泄風是陽明病自汗·惡風證, 若應用於產後風而治療, 則會虧得一定有很大的幫助.

Key Words : 漏泄, 漏風, 泄風, 食則汗出, 多汗惡風

I. 序論

原典을 읽다가 그 뜻을 명확히 알게 되면, 그 句節이 생명을 얻어, 臨床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쓰일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素問·風論』¹⁾을 공부하였는데, 내용 중에 漏風과 泄風에 관한 것이 있었다. 이 중 漏風의 症狀을 서술한 문구에 ‘食則汗出’이라는 句節이 『靈樞·榮衛生會』²⁾의 ‘人有熱, 飲食下胃, 其氣未定, 汗則

* 이 研究는 2008년도 2단계 BK 21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中華中醫藥學會 제9회 內經學術大會(2008. 7. 12~14. 中 國長春)에 발표하였던 論文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서울 東大門구 回基洞 1번지
E-mail : jeongch@Khu.ac.kr Tel: 02-961-0337.
접수일(2009년 2월 2일), 수정일(2009년 2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9일)

1), 2) 精校 黃帝內經素問靈樞; 洪元植 編纂으로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에서 刊行한 校勘活字本 黃帝內經이다. 당시 影印本이던 宋代 林億, 孫奇, 高保衡 等 校正·孫兆 改誤의 『補注 黃帝內經』 및 1910년 中國 上海廣益書局에서 明代 馬蒔와 清代 張志聰의 註釋을 合編하여 刊行한 『張馬合注黃帝內經』의 影印本, 1978년 中國 臺北 樂華出版事業有限公司에서 발행한 楊維傑編의 『黃帝內經譯解』에 수록된 內經原文 등을 校合·校正하여 素問은 1981년, 靈樞는 1985년 出版하였다.

出'이라는 句節과 유사하였으며, 또한 '漏風', '泄風'이라는 病名이 『靈樞·榮衛生會』의 '漏泄'이라는 病名과 매우 유사하였다.

전통적으로 『靈樞·榮衛生會』의 '人有熱, 飲食下胃, 其氣未定, 汗則出' 句節이 포함된 黃帝와 岐伯의 問答³⁾은, 漏泄病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⁴⁾땀으로 대표되는 上焦病的 症狀과 病理를 서술함으로써 上焦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설명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素問·風論』의 漏風은 飲酒 후에 바람을 맞아 발생한 병으로, 땀이 많이 나고 바람을 싫어하며 입이 마르고 힘든 일을 못한다고 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독립된 病症으로 인식되어 왔다⁵⁾. 특히 飲酒와 관련된 漏風의 病因 및 症狀의 類似함으로 말미암아 『東醫寶鑑』⁶⁾에서는 『素問·病能論』의 酒風⁷⁾을 漏風과 동일한 病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지금까지 『靈樞·榮衛生會』의 漏泄과 『素問·風論』의 漏風, 泄風이 동일한 病일 수 있다는 假定하에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研究가 없었던 것 같다⁸⁾.

이에 『靈樞·榮衛生會』의 漏泄에 관한 구절과 『素問·風論』의 漏風과 泄風에 관한 구절을 비교 연구하여 봄으로써 이들 病에 관한 認識을 더욱 깊이 해보고자 한다.

어떠한 病에 대한 醫師의 뚜렷하고 확실한 認識은, 臨床에서 환자를 대하였을 때, 그 症에 해당하는 환자를 금세 알아보고 올바르게 診斷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患者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정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漏泄 및 漏風, 泄風에 대한 認識을 막 새롭게 한 시점에, 마침 임상에서 漏風證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환자를 보게 되었다. 이에 그 환자의 臨床例를 소개하여 수천 년 과거 책 속의 내용이 현재의 臨床現實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內經이후 醫書들에 나타난 漏風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살펴보고, 漏風證의 治法과 病의 本質에 관해서도 인식을 나누고자 한다.

II. 本論

1. 原文解釋 및 比較

『靈樞·榮衛生會』

“黃帝曰, 人有熱, 飲食下胃, 其氣未定, 汗則出, 或出於面, 或出於背, 或出於半身, 其不循衛氣之道而出, 何也?”

岐伯曰, 此外傷於風, 內開腠理, 毛蒸理泄, 衛氣走之, 故不得循其道, 此氣慄悍滑疾, 見開而出, 故不得循其道, 故命曰漏泄.⁹⁾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熱이 있으면 음식이 胃로 내려가 아직 그 氣가 정하여지지 않았는데도¹⁰⁾ 땀이 곧바로 나옵니다. 혹은 얼굴에서 나오

養生 분야에서 漏泄은 眞氣(精氣)가 새어나간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5. p119.

10) 류정아, 장우창, 정창현.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설명모델.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1). p.66. “『黃帝內

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5. p119. “黃帝曰, 人有熱, 飲食下胃, 其氣未定, 汗則出, 或出於面, 或出於背, 或出於半身, 其不循衛氣之道而出, 何也? 岐伯曰, 此外傷於風, 內開腠理, 毛蒸理泄, 衛氣走之, 故不得循其道, 此氣慄悍滑疾, 見開而出, 故不得循其道, 故命曰漏泄.”

4) 原文에서 이어서 '血'과 '小便'을 각각 대표로 삼아 '中焦'와 '下焦'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1. pp.157-158. “飲酒中風, 則爲漏風.” “漏風之狀, 或多汗, 常不可單衣, 食則汗出, 甚則身汗, 喘息惡風, 衣常濡, 口乾善渴, 不能勞事.”

6)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編, 原本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1. p.125. “黃帝問曰, 有病身熱解墮, 汗出如浴, 惡風少氣, 此爲何病? 岐伯對曰, 病名酒風, 一名漏風. 漏風之狀, 或多汗, 常不可單衣, 食則汗出, 甚則身熱喘息, 衣常濡, 口乾善渴, 不能勞事. 『內經』 白朮散主之. 白朮散 治飲酒中風, 汗多不可單衣, 食則汗出如洗, 久不治, 必爲消渴. 防風二兩半, 白朮一兩二錢, 牡蠣煨三錢. 右爲末, 每二錢, 溫水調下. 『河間』.”

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1. p.174. “帝曰, 善. 有病身熱解墮, 汗出如浴, 惡風少氣, 此爲何病? 岐伯曰, 病名曰酒風.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以澤瀉, 朮各十分, 麩衛五分, 合以三指撮爲後飯.”

8) 현대 中國에서는 漏泄이 물이나 햇빛이 새어나간다는,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특히 氣功

며 혹은 등에서 나오며 혹은 몸의 반쪽에서 나오니, 이렇게 衛氣의 (원래 가는) 길을 벗어나서 나오는 것은 왜 그러합니까?

岐伯이 답하여 가로되, 이것은 밖으로 風에 상하여 안으로 腠理가 열리므로 (津液이) 皮毛로 쪼저서 腠理로 새는 것입니다. 衛氣가 (평소대로 행하지 않고) 달려가므로 그 (원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氣는 날래고 사납고 매끄럽고 빨라서 (주리가) 열린 것을 보면 (달려) 나가므로 그 (평소에 행하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름하기를 ‘漏泄’이라 합니다.”

『素問·風論』

“飲酒中風, 則爲漏風. 入房汗出中風, 則爲內風. 新沐中風, 則爲首風. 久風入中, 則爲腸風, 飧泄. 外在腠理, 則爲泄風. 故風者, 百病之長也, 至其變化, 乃爲他病也, 無常方, 然致有風氣也.”¹¹⁾

술을 마시고 바람을 맞으면 漏風이 됩니다. 入房하여 땀내고 바람을 맞으면 內風이 됩니다. 새로 머리감고 바람을 맞으면 首風이 됩니다. 오래된 바람이 속으로 들어가면 腸風이 되어 飧泄합니다. 밖으로 腠理에 있으면 泄風이 됩니다. 그러므로 風은 모든 病의 主長이 되니, 그 變化하여 다른 病이 됨에 일정한 방식이 없으나, 그러나 風氣가 있어서 變化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漏風之狀, 或多汗, 常不可單衣¹²⁾, 食則汗出, 甚

則身汗, 喘息惡風, 衣常濡, 口乾善渴, 不能勞事.”¹³⁾

漏風의 모양은, 혹 땀이 많은데도 늘 홀옷¹⁴⁾을 입을 수 없으며, 먹으면 땀이 나는데 심하면 전신이 땀으로 젖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바람을 싫어하고 옷이 늘 젖어있으며,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잘 나서 힘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泄風之狀, 多汗, 汗出泄衣上, 口中乾, 不能勞事, 身體盡痛, 則寒.”¹⁵⁾

泄風의 모양은, 땀이 많아서 옷의 겉까지 땀이 배어나오며, 입안이 마르고 힘든 일을 하지 못하며 몸통과 팔다리가 다 아프면, 추워집니다.”

兩篇 原文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榮衛生會』에는 症狀도 나와 있으나 漏泄이 되게 된 과정 즉 病理을 주로 설명하였고, 『風論』에서는 漏風, 泄風의 原因經路와 症狀를 주로 말하였다. 『榮衛生會』에서 ‘음식을 먹으면’ 즉시 얼굴이나 등이나 半身에 땀이 난다고 한 것은 『風論』中 漏風에서 ‘먹으면’ 곧 땀이 나는데 심하면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고 한 句節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榮衛生會』에 기술된 증상은 漏風의 증상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나 發病過程으로 보면 『榮衛生會』의 漏泄이나 『風論』의 泄風은 外風이 들어와 腠理에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비해, 『風論』의 漏風은 外風 이전에 飲酒라는 內因이 더 있다. 술을 마시면¹⁶⁾ 몸

으로 해석하였으며, 『張氏醫通雜門』의 ‘漏風之狀, 多汗, 常不可以單衣’의 해석을 ‘누풍의 증상은 땀이 많이 나 한 벌의 옷 가지고는 안 되며’라 하여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單衣는 통상 단벌 옷 보다는 홑겹의 옷으로 해석되며, 뒤에 惡風 증상이 함께 있음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땀이 많이 나고 몸이 덥지만 바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얇은 옷을 입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땀이 나 옷이 젖은 채로 바람을 맞으면 더욱 추운 느낌이 들므로, 속옷은 젖어도 밖에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겉옷이 항상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면, 뒤에 나오는 泄風의 ‘多汗, 汗出泄衣上’ 땀이 많아 땀이 옷의 위[上], 즉 겉옷에까지 배어나오는 症狀과 그 輕重이 자연스럽게 맞아진다.

經靈樞』『榮衛生會』에서 “사람에게 熱이 있으면 음식이 위로 내려가 그 氣가 定하여지기도 전에 땀이 즉시 나온다.”고 한 경우나 『黃帝內經·素問』『經脈別論』에서 “飲食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甚하면 땀이 胃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의 땀의 재료가 되는 것은 腐熟된 水穀의 精微, 혹은 津液으로서, 그 氣가 定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1차 바뀌어진 水穀의 精微나 津液이 인체에서 쓰일 여러 가지 氣들, 즉 人體의 津이나 液, 衛氣나 營氣, 血 들 중 어느 것으로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1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1. p.157.

12) ‘常不可單衣’를 ‘홀옷조차도 입을 수 없다’거나, ‘땀이 많아서 단벌의 옷으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57. “누풍 漏風”항목을 보면, 『미급천금요방』제8권에서 ‘近衣則身如火燒, 臨食則汗流如雨’라 하여 ‘열이 나서 홑겹의 옷도 입을 수 없다’는 뜻

1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1. p.158.

14) 한글 학회 지음. 우리말 큰사전 3. 서울. 어문각. 1992. p.4699. “홀옷 한 겹으로만 된 옷. 단의. 홀깃.”

1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1. p.158.

이 더워져서 熱氣를 발산하고자 하므로 腠理가 열려서, 外風이 들어오기 쉬운 상황이 된다. 반면에 陰氣와 精은 줄어들어 衛氣의 발생이 잘 안되므로 밖에서 들어온 風氣가 腠理에 계속 머물러, 飲酒로 인한 熱氣와 밖에서 들어온 風氣가 함께 病을 일으킨다. 泄風의 경우에도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 衛氣가 약한 內因이 있었기에 風氣가 腠理에 오래 머물러¹⁷⁾ 發病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榮衛生會」의 漏泄의 경우에도 ‘外感於風, 內開腠理, 毛蒸理泄’의 病理課程이 진행되게 된 것은 感風 이전에 腠理의 開合을 주관하는 衛氣의 작용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榮衛生會」의 漏泄이나 「風論」의 漏風, 泄風이 모두 外風이 들어와 머무르며 腠理에 문제를 일으켜 이

루어진 병이며, 外風이 들어와 머무르게 되는 데에 飲酒와 그로 인한 下焦 精氣의 부족, 腠理를 開合하는 衛氣作用의 失常 같은 內因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症狀은, 「風論」의 漏風은 「榮衛生會」의 漏泄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나 등에 바로 땀이 나뉘, 심하면 全身에 땀이 새듯이[漏] 줄줄 나는 것으로 보인다. 全身에 땀이 나면 옷이 젖어 늘 축축하고, 津液이 땀으로 계속 소실되므로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며, 津液이 奪하면 元氣도 쇠하므로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지만, 또한 腠理가 열려있어서 惡風하기 때문에 홀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泄風은 처음부터 구멍이 난 것처럼 땀이 많아서 땀이 걸옷까지 배어나오며[泄], 입안이 마르고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몸통과 팔다리가 모두 아프고 마침내는 추워진다. 여기서 추워진다는 것은 室內에 있으면서 바람이나 찬 氣運을 특별히 받지 않아도 삭신이 쭈시면서 춥다는 것으로, 漏風에서 바람을 쐐었을 때 體表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榮衛生會」의 漏泄과 「風論」의 漏風, 泄風을 모두 飲酒로 인한 陰氣와 下焦 精氣의 損傷, 또는 기타의 原因으로 인한 衛氣作用의 失常 등으로 腠理의 開合에 문제가 생김으로 風邪를 感受하여 腠理가 느슨해지고 땀이 많이 나는 병으로 볼 수 있다. 『榮衛生會』에는 땀이 많이 난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漏泄’이라는 병명 자체가 ‘多汗’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샌다’라는 말에는 ‘막을 수 없다, 역부족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漏風과 泄風은 病의 經路가 약간 다르면서, 漏風에 비해 泄風이 津液과 元氣가 더욱 耗損된 重證으로 볼 수 있다.

2. 漏泄風의 發病機轉

『靈樞·榮衛生會』에 ‘人有熱 飲食下胃, 其氣未定, 汗則出’이라 한 데에서 ‘人有熱’의 의미를 깊이 생

16) 술을 마시면 脾胃에 熱이 盛해지고, 精氣 및 下焦 腎臟의 기운이 약해지는 이치를 『素問厥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1. p.169. “帝曰, 熱厥何如而然也. 岐伯曰, 酒入於胃, 則絡脈滿而經脈虛,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 陰氣虛, 則陽氣入, 陽氣入, 則胃不和, 胃不和, 則精氣竭, 精氣竭, 則不營其四支也. 此人必數醉若飽以入房, 氣聚於脾中, 不得散, 酒氣與穀氣相薄, 熱盛於中, 故熱偏於身, 內熱而溺赤也. 夫酒氣盛而標悍, 腎氣有衰, 陽氣獨勝, 放手足爲之熱也.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熱厥은 어찌하여 된 것입니까? 岐伯이 가로되, 술이 胃로 들어가면 絡脈은 차고 經脈은 비게 됩니다. 脾는 胃를 위하여 그 津液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飲酒하여 腸腑의 經脈이 비게 되어) 陰氣가 허하므로 陽氣가 들어오고, 陽氣가 들어오므로 胃가 (陰陽이) 和하지 못합니다. 胃가 和하지 못하니 (脾도 津液을 行하지 못하여) 곧, 精氣가 마르고, 精氣가 마르면, 곧 그 四肢를 營養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주 취하거나 혹은 배불리 먹어서 入房하니, 氣가 脾中에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므로, 酒氣와 穀氣가 서로 부딪혀 中에 熱이 盛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熱이 몸에서 지나치게 되어 속이 덥고 小便이 붉어집니다. 무릇 술은 氣가 盛하여 재마르고 날래므로, 腎氣는 쇠하여지고 陽氣만 홀로 勝하여(土克水) 손발이 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7) 泄風의 원인경로를 설명하는 內經 原文에서, 앞문장인 “久風入中, 則爲腸風, 飧泄.”의 主語인 ‘久風’이 뒷문장인 “外在腠理, 則爲泄風.”의 主語도 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꼭 ‘久風’이 아니더라도 篇名(風論)과 전체 文意로 보았을 때, “外在腠理, 則爲泄風.” 문장의 主語는 ‘風’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內經 전체를 관통하는 外感의 법칙, 즉 ‘人體 精氣가 약할 때에만 邪氣가 침입하여 病을 일으킬 수 있다(精氣存內, 邪不可干. 邪之所湊, 其氣必虛.)’는 原則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風氣가 腠理에 머물러 泄風이 되게 된 데에는 腠理의 開合을 주관하는 精氣인 衛氣의 작용에 문제가 생긴 內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熱이 있게 된 것은 原文 아래문장에서 岐伯이 답하는 것과 같이, 처음에 外感으로 風에 傷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風氣가 人體의 體表에 侵入하여 皮毛와 腠理에 일으키는 變化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素問·風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風氣藏於皮膚之間，內不得通，外不得泄，風者善行而數變，腠理開則洒然寒，閉則熱而悶。¹⁸⁾

風氣가 皮膚의 사이에 감추어져서 안으로 소통되지 못하고 밖으로 배설되지 못하면, 바람이라는 것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변화를 촉진하므로, 腠理가 열리면 떨리면서 춥게 하고 닫히면 더우면서 답답하게 합니다.”

이 文章에 의하면 風氣가 皮膚之間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腠理의 閉合作用이 더욱 망가지게 되어, 원래 人體의 寒溫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열리거나 닫혀야 할 腠理가 반대로 때 아닌 때에 열리고 닫힘으로써 오히려 人體에 寒熱의 刺戟을 번갈아 가하는 病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개체가 이렇게 정상적인 氣候變化和 동떨어져서 寒熱刺戟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보면 그 개체의 場에서는 陰陽變化的 속도가 빨라져서 그 개체가 날 때 定해진 壽命이 일찍 消盡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그 개체의 場이 손상을 입음으로써 ‘風化作用¹⁹⁾’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風化作用이 빨리 진행되는 상황을 取象하면 ‘熱’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動物이나 植物을 차갑게 열리면 風化作用이 느려져서 壽命을 늘릴 수가 있다. 1만 년 전 絶滅한 매머드가 얼음 속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동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알래스카 등지에서 많이 발견됨으로써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²⁰⁾, 냉동인간²¹⁾에 대한 실험 등은 風化作用이

느리게 진행되는 상황을 ‘寒’으로 取象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2006년 WHO 자료에 의하면 평균수명(出生年の 平均餘命)이 55세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나라 31개국 모두가 적도 근처의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 평균수명 75세 이상의 나라 50개국 중 30개국 이상이 지중해 以北의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북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적도에 가까이 있는 나라는 바베이도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부룬나이, 다루살람, 싱가포르의 7개국에 불과하였다²²⁾. 평균수명에는 그 지역의 氣候뿐 아니라

中 - “70만 년 전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유럽 등지에 있던 남부매머드(southern mammoth)는 추위로 절멸하고, 한대지방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매머드의 개체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30만 년 전, 털북숭이 매머드와 같은 추위에 강한 매머드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1만 년 전인 홍적세 말에 절멸하였다. 현재까지 얼음 속에서 죽은 매머드가 동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알래스카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어 화석코끼리 중에서 잘 알려져 있다. 매머드의 절멸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설, 인류사냥설 등의 가설이 있지만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21)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경기도 성남시. Copyright © NHN Corp.2009. 냉동인간[冷凍人間] 항목 中 -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앓거나 노령으로 사망을 목전에 둔 사람들을 액화질소 속에 산 채로 얼려 놓은 것. 숨이 멎었다라도 세포가 살아 있다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만드는 순서는 먼저 마취 후 몸 전체의 온도를 떨어뜨려 세포가 괴사하는 것을 막고 혈액을 인공적으로 교체한다. 그후 세포막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액을 몸 속에 넣어 순환시키고 질소를 뿌려 냉동처리한 다음 특수 제작한 내부 용기에 넣고 저장 탱크에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리된 인간은 생체시간이 멈추어 세포가 노화하지 않은 그대로 보존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냉동인간은 의학이 발달한 미래에 다시 소생시켜 병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신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던 미국의 심리학자 베드퍼드가 그 시조로서, 1967년 73세의 나이로 미래에 암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영하 196℃의 질소탱크 속에 들어가기를 자청하였다.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州)의 냉동인간 회사인 알코어 등 네 곳에서 이 같은 목적으로 100여 구의 냉동인간을 보관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에서도 실험 중에 있다. 비용이 약 12만 달러 이상으로 비싸지만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자청하고 있다.”

22) WHOSIS(WHO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 WHO. 2008. “Table - Life expectancy at birth(years) both sexes. 平均餘命 55세 이하 31개국(괄호 안은 2006년 현재 평균연령) - Angola(41), Benin(55), Botswana(52), Burkina Faso(47), Burundi(49), Cameroon(51), Central African Republic(48),

1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1. p.157.

19) 風化作用은 원래 地球科學에서 ‘암석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 점차 토양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論文에서는 萬物이 生한 후에 老病死, 또는 長化收藏의 변화를 겪으면서 形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일컫는 말로 의미를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20)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경기도 성남시. Copyright © NHN Corp.2009. 매머드 [mammoth] 항목

경제여건과 식량공급 상황, 보건환경 등의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들 모두가 ‘氣候’라는 궁극적 조건의 영향 下에 형성된 것이므로 지역별 平均壽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氣候條件이라 할 수 있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적도 부근의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북쪽의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氣候가 더운 지역에서는 사람의 몸이 自然으로 돌아가는 風化作用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靈樞·榮衛生會』原文의 ‘사람에게 熱이 있다[人有熱]’함을 ‘外部로부터 들어온 風氣에 의해 우리 몸의 風化作用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岐伯의 대답에서 漏泄의 機轉을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자.

“岐伯曰, 此外傷於風, 內開腠理, 毛蒸理泄, 衛氣走之, 固不得循其道, 此氣慄悍滑疾, 見開而出, 故不得從其道, 故命曰漏泄.”

‘此外傷於風, 內開腠理’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

이 風邪가 皮膚에 머물러 있음으로 개체의 場이 熱化되어 腠理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 즉 앞문장인 黃帝의 질문 中 ‘人有熱’의 과정을 岐伯이 ‘外傷於風, 內開腠理’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毛蒸理泄, 衛氣走之’에서 우선 ‘毛蒸理泄’은, 外傷風邪로 인하여 개체가 熱化되어 腠理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飲食이 胃로 들어오자 津液이 증발되어 열려있는 腠理로 새어나가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즉 外傷於風, 內開腠理와 毛蒸理泄, 衛氣走之 사이에 飲食下胃의 事件이 일어난 것으로 본 것이다. 毛蒸理泄은 皮膚 언저리의 津液이 찌져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 것이 분명한데, 앞 文章의 순서에 따라 땀나는 것이 음식을 먹은 다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飲食을 먹으면 上焦가 활성화되어 胃와 연락되어 있는 肌肉에 더욱 熱이 盛하여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다른 觀點으로는 앞서 ‘人有熱’을 설명한 것처럼 인체가 外風에 傷함으로 인하여 陰陽變化 속도가 지나치게 亢進되어 있으므로, 음식을 먹었을 때도 정상적인 消化過程이 진행되기에 앞서 人體가 熱化되어 땀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衛氣走之’는, 이 때 衛氣는 腠理를 적절하게 여닫는 소임을 맡고 있으므로, 津液이 새어나가는 것을 보고 이것을 막으려고 病所로 급히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衛氣의 능력 밖이며, 오히려 구원하러 오는 衛氣만 病所의 熱氣와 엉겨서 밖으로 줄줄이 새어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땀이 계속 나므로 津液이 말라서 渴症이 나며, 津液과 衛氣가 계속 손실되므로 元氣 또한 衰하여 힘쓰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腠理가 늘 열려 있으므로 皮膚에 구멍이 난 것처럼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飲食을 먹으면 바로 땀이 나는 등 더우면서도, 腠理가 열려 바람을 막지 못하므로 얇은 옷을 입지 못한다²³⁾. 여기에서 땀이 걸

Chad(46), Congo(54), Cote d'Ivoire(53),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47), Equatorial Guinea(46), Guinea(53), Guinea-Bissau(48), Kenya(53), Lesotho(42), Liberia(44), Malawi(50), Mali(46), Mozambique(50), Niger(42), Nigeria(48), Rwanda(52), Sierra Leone(40), South Africa(51), Swaziland(42), Uganda(50), United Republic of Tanzania(50), Zambia(43), Zimbabwe(43), Somalia(55). 平均餘命 75세 이상 51개국(괄호 안은 2006년 현재 평균여명) - Argentina(75), Barbados(75), Canada(81), Chile(78), Costa Rica(78), Cuba(78), Panama(76), Paraguay(75), Saint Lucia(75), United States of America(78), Uruguay(75), Bahrain(75), Kuwait(78), Qatar(77), United Arab Emirates(78), Andorra(82), Austria(80), Belgium(79), Bosnia and Herzegovina(75), Croatia(76), Cyprus(80), Czech Republic(77), Denmark(79), Finland(79), France(81), Germany(80), Greece(80), Iceland(81), Ireland(80), Israel(81), Italy(81), Luxembourg(80), Malta(79), Monaco(82), Netherlands(80), Norway(80), Poland(75), Portugal(79), San Marino(82), Slovenia(78), Spain(81), Sweden(81), Switzerland(82), United Kingdom(79), Australia(82), Brunei Darussalam(77), Japan(83), New Zealand(80), Republic of Korea(79), Singapore(80).”

23) 漏風の 症狀이다. 『素問·風論』에서 ‘飲酒中風’이라 한 漏風の 經路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飲酒라는 요인이 人體를 熱化하고 腠理를 열리도록 하여 風이 侵入하기 좋은 조건을 만든다는 것을 말한 것 외에 風이 侵入한 후의 과정은 『靈樞·榮衛生會』에서 설명한 漏泄의 機轉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여 漏泄의 機轉을 설명한 끝에 漏風の 症狀만 덧붙인 것이다.

웃까지 배어나올 정도로 계속 나면, 元氣가 더욱 衰하여 더운 것이 없어지고 血脈에까지 風寒이 들어와 體幹과 四肢가 다 아프며 마침내 바람이 없는 室內에 있어도 惡寒하게 된다²⁴⁾.

3. 臨床例

2008년 5월 19일 京畿道 龍仁에 있는 동료 韓醫師의 韓醫院에 代診가서 보게 된 35세 女患이다. 2008년 2월 18일 初診時 産後 8週로, 産後 6週頃 外出하였다가 感風寒하여 惡寒戰慄하였으며 이후로 尾骨痛症 및 손가락, 팔목, 팔, 발목, 다리가 시리고 저린 産後風으로 來院하였다. 肥白人으로 平素 겨울에도 이불을 안 덮을 정도로 惡熱하고 多飲水·多汗하였는데, 初診來院 당시 1週間 더욱 多汗出하였으며 특히 惡風이 심하여 바람이 몸의 어디로 들어오는지 느낄 정도였다. 食慾·消化·大便·睡眠 등은 모두 정상이었으며 小便은 妊娠後로 頻數하였고 右關에 滑한 脈相이 있었다.

院長은 初診日부터 三理, 解溪와 大腸正格, 腎正格 등의 針治療를 매일 시행하였으나 多汗이 줄어들지 않고, 3월 6일 밤에 등과 목, 옆머리에 땀이 나고 아기를 안거나 食事時에 汗出한다고 호소하므로 當歸·熟地黃·生地黃·黃連·黃芩·黃柏 각4g, 黃芪8g의 當歸六黃湯을 處方하여 하루 3번, 3일분으로 投與하였다. 3월 13일 발이 뜨겁다고 호소하므로 다시 生地黃12g, 木通8g, 玄參·瓜蒌仁·茯苓·澤瀉 각 6g, 知母炒·黃柏炒·荊芥·防風·羌活·獨活·牡丹皮 각4g으로 處方을 구성하여 하루 2번, 10일분 投與하였다. 이 처방은 四象處方 중 少陽人 結胸症에 쓰는 導赤降氣湯²⁵⁾에 知母炒·黃柏炒·牡丹皮 각4g을 加

한 것으로, 발바닥이 뜨거운 것을 心熱로 보았으며, 또한 補陰하고 産後瘀血을 풀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매일 診療時, 患者가 氣運이 떨어지고 이번엔 도리어 발이 시리고 虛飢진다고 호소하며, 左關脈이 細하고 右尺脈은 充進되었으며 右關脈이 弱하므로 3월 24일 熟地黃 10g, 茯苓·澤瀉·柴胡 각 8g, 山茱萸 6g, 石膏·知母·荊芥·防風·羌活·獨活·龍骨·牡蠣 각4g으로 處方을 구성하여 하루 2번, 5일분 投與하였다. 導赤降氣湯加味方을 투여하여 발바닥 뜨거운 것이 시린 것으로 바뀌고 氣力이 저하되었으므로 少陽人 虛證으로 판단하여 熟地黃, 山茱萸 등을 主藥으로 하였으며, 虛飢와 脈相으로보아 肝熱血虛하고 相火가 뜨므로 柴胡·龍骨·牡蠣·石膏·知母를 加하였으며, 體表를 열어 邪氣를 發散시킬 의도로 荊芥·防風·羌活·獨活을 加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 18일에 同一한 處方 10일분, 4월 26일에 역시 同一한 處方에 牡丹皮 6g을 더 加하고 分量을 약간씩 조정하여 10일분을 더 投與하였다. 이렇게 韓藥과 針治療를 並行하여 5월 13일 경에는 다른 부위의 시리고 저린 것이 없어지고 左足 2·3·4趾 끝부분에만 시린 증상이 남았다.

院長의 不在를 대신하여 이 患者를 진찰한 5월 19일에는, 患者가 症狀이 호전됨에 따라 방심하고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여 속이 더부룩해짐과 아울러 그동안 다스려놓았던 産後風 症狀이 다시 악화되어 몹시 낙담한 상태였다. 四診을 하여보니 목과 이마에서 땀이 많이 나는데 특히 飲食을 먹으면 汗出하며, 물이 많이 먹히고 食中飲水하며, 피부가 축축하고, 大便의 색이 검으며, 浮腫이 있으며, 右關尺脈이 滑하고 左關尺脈은 緊하며, 左寸脈이 緩弱하였다. 多汗하면서도 惡風이 심하고 특히 食事時에 汗出한다는 대목에서 이 患者의 症狀이 內經에서 공부하였던 漏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하여 나머지 症狀들을 맞추어보니, 平素 자면서 이불을 덮지 못할 정도로 惡熱하며 飲水量이 많았던 것은 ‘人有熱’의 漏泄 病因과 일치하였으며 食事時 땀나는 것, 이마에 땀나는 것, 多汗, 물이 많이 먹히고 食中飲水하는 것, 皮膚가 축축한 것, 惡風이

24) 泄風의 症狀이다. 泄風 역시 그 經路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靈樞·榮衛生會』漏泄의 機轉을 설명한 끝에 漏風에 이어 그 症狀만 덧붙였다. 風이 腠理에 있어서[在] 되었다는 病因이 漏泄의 病因과 같으며, 多汗·汗出泄衣上·口中乾·不能勞事 등의 症狀이 漏風과 같거나 비슷하므로 漏風과 泄風을 시작이 다른 별개의 病으로 보지 않고 동일한 機轉에서 漏風이 더 진행되어 病이 깊어진 것을 泄風으로 본 것이다.

25) 李泰浩 編著. 東醫四象診療醫典. 서울. 행림출판. 1990. p.248. “[功用] 結胸氣痰及莖中痛을 낮게 한다. [藥品] 上

方(荊防導赤散)에 茯苓과 澤瀉를 加한다.”

심한 것은 漏泄의 ‘飲食下胃, 其氣未定, 汗則出, 或出於面’과 漏風の ‘或多汗, 常不可單衣, 食則汗出, 甚則身汗, 喘息惡風, 衣常濡, 口乾善渴’과 일치하였다. 初診 來院時 惡寒戰慄하며 汗出이 더욱 심하였으며 尾骨과 四肢가 저리고 시림이 심하였던 것은 當時엔 泄風症狀인 ‘多汗, 身體盡痛, 則寒’으로까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內經에서 공부한 病을 現實에서 보다니!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治法과 處方이었는데, 우선 患者에게 厚味를 철저히 禁하도록 하였다. 漏泄 및 漏風, 泄風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外感風邪가 體表에 머무름으로 인하여 人體가 熱化되어 發病한다. 그러므로 助熱 하는 飲食이나 養生을 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治療에서 氣分熱을 내리는 石膏·知母가 든 處方이 어느 정도 效果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患者의 肌肉에 머물러 있는 邪氣를 몰아내려면 보다 더 정확하게 肌肉에 작용하는 藥材가 필요했다. 이에 處方集을 찾아보니 柴葛解肌湯²⁶⁾의 辛涼解肌하면서 裏熱을 淸解하는 治法이 가장 근접할 듯하였다. 또한 大便의 색이 검은 것은 瘀血이 많은 것이니 犀角地黃湯²⁷⁾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발이 차고 左關尺脈이 緊한 것은 血이 마르고 風이 動하는 것이니 鎮肝熄風湯²⁸⁾이며, 浮腫이 있고 左寸脈이 緩弱한 것은 心臟이 부어 약해진 것으로 加減淸宮湯²⁹⁾이

었다. 犀角地黃湯, 鎮肝熄風湯, 加減淸宮湯은 모두 血分에 作用하는 方劑로 구성藥물에 중복되는 것이 많으며, 실제 臨床에서도 이 患者의 경우처럼 세 方劑의 適應症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주 合方하여 쓰게 된다. 이렇게 患者의 血分에 세 가지 方劑의 證이 겹쳐있음과, 이 患者의 病은 ‘漏風’이라는 것으로 氣分의 陽明熱을 淸解하고 肌肉의 邪氣를 驅逐해야하니 柴葛解肌湯에서 石膏, 葛根, 黃芩, 柴胡 등의 藥劑를 골라 쓸 것을 院長에게 말하였다.

5월 22일 院長은 牛膝·代赭石 各15g, 生地黃12g, 石膏10g, 玄蔘·龜板·天門冬·白芍藥·牛角·龍骨·牡蠣·茯苓·澤瀉 各7.5g, 赤小豆·連翹 各6g, 牡丹皮·竹葉·金銀花 各4g, 川棟子·麥芽·茵陳 各3g 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하루 2번씩 10일간 복용토록 하였다. 더불어 胃經 五輸穴을 瀉하는 針을 4회 더 시술하고, 食餌에 주의하여 마침내 治療를 마쳤다. 5월 30일 마지막 來院時 左側 손가락에만 찬바람을 쐬면 시린 症狀이 있었다. 이후 전화로 問診하니 惡風이나 惡寒·汗出·消化不良의 症은 거의 없으며, 다만, 손발을 찬물에 담글 때만 시리고 아픈 증상이 남아있었다. 肌肉에 박힌 邪熱이 다 驅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院長에게 葛根, 黃芩, 柴胡 등을 왜 加하지 않았느냐 물으니 여러 가지 方劑를 合方하여 處方을 구성하느라 柴葛解肌湯을 미처 찾아보지 못했다 하였다.

4. 考察

여기서 『素問病能論』의 酒風 및 內經이후 醫書들에 나타나는 漏泄風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漏泄이나 泄風에 관해서는 하나의 病症으로 인식하여 따로 언급한 것이 보이지 않고, 주로 漏風에 관한 서술이 보인다.

먼저 『素問病能論』에서는

“帝曰, 善. 有病身熱解墮, 汗出如浴, 惡風少氣, 此爲何病?”

岐伯曰, 病名曰酒風.

帝曰, 治之奈何?”

- 26) 裴秉哲 編. 標準 臨床方劑學. 서울. 成輔社. 1995. p.70. “柴胡 6~9g 葛根 9~15g 芍藥 6~9g 黃芩 6g 羌活 3g 白芷 3g 桔梗 3g 甘草 3g <石膏 3~10g 生薑 3쪽 大棗 2개> [效能] 解肌淸熱 <辛涼解肌·淸裏熱> [主治] 感冒風寒이 옮길되어 化熱한 證.”
- 27) 裴秉哲 編. 標準 臨床方劑學. 서울. 成輔社. 1995. p.135. “犀角 1.5~3g 生地黃 30g 芍藥 12g 牡丹皮 9g [效能] 淸熱解毒·涼血散瘀·定驚. [主治] 熱入血分證(熱邪가 血分으로 傳入한 증상). 즉 高熱로 인한 失血證이다.”
- 28) 裴秉哲 編. 標準 臨床方劑學. 서울. 成輔社. 1995. p.443. “懷牛膝·生赭石 各30g 生龍骨·生龜板 各15g 生牡蠣·生杭藥·玄蔘·天門冬 各15g 川棟子·生麥芽·茵陳 各6g 甘草 4g [效能] 鎮肝熄風·滋陰瀉陽. [主治] 肝腎陰虛·肝陽上亢으로 발생하는 肝風內動·氣血逆亂.”
- 29) 임진석 정리. 溫病學處方解說集. 경기도 고양시. 대성의학사. 2002. p.4. “犀角 1, 連翹 3, 玄蔘心 竹葉心 銀花 2, 赤小豆皮 3 [온병 분류] 濕溫, 熱이 濕보다 많은 경우, 濕熱이 化燥하여 熱入心包하는 경우. [증상] 高熱, 譫語, 神昏不語, 指厥, 舌蹇(말을 못한다). 濕熱이 心竅를 蒙蔽하여 舌體가 肥大하고 약간 윤기가 있으면서 불그스름하다.”

岐伯曰, 以澤瀉, 朮各十分, 藥銜五分, 合以三指撮爲後飯.³⁰⁾

이라 하여 酒風의 症狀과 治療 處方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漏風 症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食則汗出이 없으며, 身熱解墮라 하여 몸에 熱이 있음과 그로인한 弊害를 분명히 제시하였으며, 汗出如浴의 汗出 症狀은 衣常濡나 汗出泄衣上의 漏風, 泄風 症狀보다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口乾에 대한 언급이 없다. 病名이 酒風으로 飲酒와 관계있음을 알 수 있으나, 飲酒中風의 漏風 病因과 같다고 보다는 酒 자체를 風, 즉 病을 일으키는 原因으로 보아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다. 治法으로 澤瀉, 朮, 藥銜으로 구성된 方을 제시하였는데, 藥銜이 어떤 약재인지 확실치 않으나 裏濕을 없애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證狀을 종합하여 보면 酒風은 飲酒가 原因이 된 內傷 濕熱病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備急千金要方治諸風方』에서는

“因醉取風爲漏風, 其狀惡風, 多汗少氣, 口乾喜渴, 近衣則身如火燒, 臨食則汗流如雨, 骨節懈惰, 不欲自勞,³¹⁾

라 하여 漏風의 原因과 症狀을 서술하고 있다. 대체로 內經의 서술과 같으나 ‘常不可單衣’를 ‘近衣則身如火燒’로 풀이하였으며 ‘食則汗出’을 ‘臨食則汗流如雨’로, ‘不能勞事’를 ‘骨節懈惰, 不欲自勞’로 풀이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것은 아마 身熱解墮, 汗出如浴의 酒風 症狀을 참고로 하여 漏風의 症狀을 부연·서술하고자 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黃帝素問宣明論方諸證門』에서는

“飲酒中風, 或汗多不可單衣, 食則汗出, 多如液漏. 久不治, 爲消渴疾. 白朮散主之. 治漏風, 久虛多汗, 食之汗出如洗, 少者痿劣. 牡蠣 二錢焙赤, 白朮 一兩一分, 防風 二兩半, 右爲末, 每服一錢, 溫水調下, 不計時. 如惡風, 培防風, 白朮. 如汗多面腫, 倍牡蠣.³²⁾

라 하여 飲酒中風의 漏風 原因과 食則汗出의 漏風 症狀, 如液漏나 汗出如洗의 酒風 症狀를 모두 섞어서 서술하고 있으며, 白朮散이라는 治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漏風이 久虛多汗의 病이라든가, 오래도록 치료하지 않으면 消渴疾이 된다고 하는 인식을 더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酒風의 汗出如浴 症狀를 가지고 漏風을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正작 酒風의 身熱解墮 症狀은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白朮散 加減法에서 ‘如惡風’이라 한 것을 보면 惡風 症狀은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治法은 白朮로 補中治濕하고 防風으로 解表하고 牡蠣를 써서 보다 적극적으로 斂汗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河間은 內經의 漏風과 酒風을 결합하여 多汗 症狀이 두드러지며 身熱 症狀이 별로 없는 虛證의 어떠한 병을 漏風으로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東醫寶鑑·內景篇』에서는

“黃帝問曰, 有病身熱解墮, 汗出如浴, 惡風少氣, 此爲何病. 岐伯對曰, 病名酒風, 一名漏風. 漏風之狀, 或多汗, 常不可單衣, 食則汗出, 甚則身熱喘息, 衣常濡, 口乾善渴, 不能勞事. 『內經』白朮散主之. 白朮散治飲酒中風, 汗多不可單衣, 食則汗出如洗, 久不治, 必爲消渴. 防風二兩半, 白朮一兩二錢, 牡蠣蝦三錢. 右爲末, 每二錢, 溫水調下. 『河間』³³⁾

라 하여 漏風과 酒風을 처음부터 같은 病으로 인식한 것은 물론, 두 病에 대한 서술이 內經에서 동일한 句節에 들어있는 것처럼 문장을 인용·서술하고 있다. 治法으로는 『黃帝素問宣明論方』의 白朮散을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張氏醫通·雜門』에서는

“又有漏風證, 一名酒風, 不論冬夏, 額上常有汗出, 此醉後當風所致. 經曰, 有病身熱懈惰, 汗出如浴, 惡風少氣, 病名酒風, 治之以澤瀉朮各十分, 藥啣五分, 合以三指撮爲後飯. 又曰, 飲酒中風, 則爲漏風, 漏風之狀, 多汗, 常不可以單衣, 食則汗出, 甚則身汗喘急,

3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1. p.174.

31)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대성문화사. 1992. p.271.

32) 劉完素 撰. 黃帝素問宣明論方.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上.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73.

33)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編. 原本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1. p.125.

惡風衣常濡，口乾善渴，不能勞事。先宜五苓散熱服取汗，後與黃芪健中加白朮澤瀉。³⁴⁾”

라 하여 『素問·病能論』의 酒風과 「風論」의 漏風을 처음부터 동일한 病으로 보고 引用敍述하였으며, 治法과 治方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不論冬夏, 額上常有汗出, 醉後當風所致’라 한 것은 다른 醫書들에서 볼 수 없었던 서술로 漏風이 熱證임을 일부 인식한 듯하다. 그러나 五苓散 熱服으로 發汗하여 表寒과 裏濕을 푼 후 補氣하는 治法으로 보아 傷風 自汗과 氣虛自汗이 合病한 것쯤으로 漏風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內經 이후 醫書들의 漏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모두 「病能論」의 酒風을 漏風과 같은 병으로 보아 酒風의 症狀으로 漏風의 症狀을 부연·설명함으로써 漏風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하고 풍부하게 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治法에 있어서도 자연히 「病能論」에 제시된 酒風 治方の 영향을 받아 여러 處方 속에서 白朮이 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內經과 內經에서 비교적 가까운 時代에는 漏風에서 身熱, 多汗出, 惡風 세 가지의 症狀이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데 반해 後代로 내려갈수록 身熱과 惡風의 비중이 줄고 多汗出의 비중이 극대화되어 漏風을 氣虛의 病機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漏泄 및 漏風, 泄風은 기본적으로 땀이 새듯이 나는 病, 즉 自汗의 범주에 속한다.

自汗의 原因과 經路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 太陽病 傷風 桂枝湯證과 陽明病 白虎湯證, 脾胃氣虛로 인한 補中益氣湯證, 傷暑로 인한 清暑益氣湯證, 腎陽虛로 인한 蓼附湯 및 芫附湯證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漏泄과 漏風, 泄風이 위에 대별한 自汗證과 구분되는 것은 특징적인 惡風과 身體痛, 惡寒 症狀이다. 肌肉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바람 들어오는 것이 다 느껴지며 시리고 저리고 아프기까지 하다. 陽明病 白虎湯證이 진행되어 白虎加人蓼湯證이 되면 등이 시러운 背惡寒이 나타나나 이는 陽氣가 耗損되어 나타나는 症狀이다. 補中益氣湯證과 腎陽虛

로 인한 芫附湯證에도 惡寒이 있으나 역시 陽氣가 不足해서이다. 清暑益氣湯證은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나면서 힘든 일을 못하는 점이 비슷하나 惡風 및 惡寒이 별로 없다. 桂枝湯證에는 惡風이 있지만 人體가 熱化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漏泄 및 漏風, 泄風과 다르다. 漏泄 및 漏風, 泄風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惡風과 身體痛, 惡寒은 肌肉이 병들어 腠理 閉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腠理 閉合을 主管하는 것은 衛氣의 작용으로, 대부분의 自汗證에서는 中氣를 보충하거나 下焦에서의 衛氣 발생을 늘임으로써 땀을 그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漏泄 및 漏風, 泄風에서 腠理 閉合이 안 되는 것은 보다 器質的인 문제이다. 漏泄風의 發病機轉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음 風邪가 體表에 머무르게 된 原因은 飲酒나 기타 이유로 下焦 精氣가 약해져서 衛氣가 腠理 閉合을 調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風邪가 體表에 머물러 적절치 못한 腠理 閉合이 계속되므로 風化作用이 빨리 진행되면서 人體가 熱化되고, 이것은 다시 腠理에 영향을 미쳐 그 器質까지 변화시킨다. 이는 陽明熱이 肌肉의 血分으로 들어감으로 筋肉이 원래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치료함에 있어 解肌하는 石膏, 葛根과 더불어 筋肉의 血分에 박혀있는 熱을 풀어줄 수 있는 黃芩, 柴胡 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한편, 앞의 臨床例가 產後風으로 來院한 患者였거니와 產後에 이같이 汗出하며 肌肉에 바람 든 것처럼 惡風하고 손목, 발목이 시리고 저리는 病으로 오래도록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분명,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婦人의 血分이 極盛했다가 極虛해지므로 肝이 主하는 筋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產後風 자체의 病理가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고 治療해서는 손목시리고 바람 드는 症狀이 다 해결되지 않기에 產後風이 많은 婦人들의 痼疾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惡風 症狀이 심하다고 하여 무조건 虛寒證으로만 보지 말고, 漏泄 및 漏風, 泄風에 해당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血分을 적절히 다스리는 동시에 辛涼解肌, 清裏熱하는 治法을 적용한다면 產後風 治療에 많은 도

34) 張璐.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460-461.

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로써 미루어보건대 漏泄 및 漏風, 泄風은 陽明病 自汗·惡風證이라 할 수 있다.

III. 結 論

이상 『靈樞榮衛生會』의 漏泄과 『素問風論』의 漏風, 泄風에 관한 原文 比較研究 및 發病機轉에 대한 研究, 臨床例를 통한 治法과 病의 本質에 대한 考察 등을 통해 얻은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靈樞榮衛生會』의 漏泄에 관한 原文에는 漏泄의 症狀과 함께 病理機轉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素問風論』의 漏風, 泄風에 관한 原文에는 漏風, 泄風의 原因經路와 症狀이 나와 있다. 病名이 類似할뿐 아니라 飲食을 먹으면 汗出하는 症狀과 多汗濡衣, 口乾, 不能勞事, 惡風 및 惡寒 症狀이 비슷하며, 최초로 外風을 받아 病이 생겨나는 原因까지 同一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泄風은 漏風에서 津液과 元氣의 耗損이 더 진행되어 症狀이 보다 심해진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2. 漏泄 및 漏風, 泄風이 發病하는 機轉은, 먼저 飲酒 등으로 人體 精氣와 衛氣가 약해지고 腠理가 벌어진 틈을 타 外部로부터 風邪가 들어와 體表에 머물게 되는 1차 病因이 있다. 이후 體表에 風邪가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腠理의 開合作用이 失常하여 때 아닌 때에 열리거나 닫힘으로써 人體가 寒熱刺戟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된다. 寒熱刺戟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은 결국 人體의 風化作用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를 人體의 ‘熱化’로 取象할 수 있다. 이것은 2次 病因이 되어 飲食을 먹으면 정상적인 消化過程이 진행되기도 전에 땀이 나오게 하며, 多量の 땀이 나오게 한다. 땀으로 津液과 元氣가 많이 새어나가므로 옷이 젖고 입이 마르고 숨이 차며 힘든 일을 못한다. 특히 다른 自汗證과 달리 中氣나 衛氣를 돕는 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수준으로 腠理開合이 완전히 망가져서 外風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느낄 만큼 惡風이 심하며, 泄風에 이르면 四肢와 體幹이 시리고 아프

며 惡寒한다.

3. 漏泄 및 漏風과 泄風의 症狀, 機轉에 대하여 공부한지 얼마 안 되어, 産後風으로 診療 받고 있는 한 婦人의 症狀이 漏風에 해당됨을 알아볼 수 있었다. 瘀血과 動風, 心濕熱의 證이 더 있으므로 犀角地黃湯, 鎮肝熄風湯, 加減清宮湯 을 合方하여 血分을 다스리고 漏風證은 柴葛解肌湯의 ‘辛涼解肌, 清裏熱’의 治法으로 다스릴 것을 조언하였다. 牛膝·代赭石 各15g, 生地黃12g, 石膏10g, 玄蔘·龜板·天門冬·白灼藥·牛角·龍骨·牡蠣·茯苓·澤瀉 各7.5g, 赤小豆·連翹 各6g, 牡丹皮·竹葉·金銀花 各4g, 川楝子·麥芽·茵陳 各3g 으로 處方을 구성하여 10일분을 투여하면서 胃經 五輸穴을 瀉하는 針術을 4회 竝行하여 治療를 마친 후 汗出, 惡風, 惡寒이 해소되고 찬물에 손발을 넣을 때만 시리고 아픈 증상이 남아 있었다. 處方에 柴葛解肌湯의 葛根, 柴胡, 黃芩 등을 빼뜨려 肌肉에 박힌 熱邪가 다 驅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짐작되었다.

4. 內經 이후 醫書들에서는 모두 『素問病能論』의 酒風을 漏風과 동일한 病으로 보아 漏風에 대한 인식을 풍부히 하는 한편 治法에 있어서도 內經에 제시된 酒風의 治方을 계승·발전시켰다. 그러나 後代로 내려갈수록 身熱 및 惡風의 비중이 줄어들고 汗出 症狀을 극대화시켜 傷風氣虛自汗에 가깝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素問病能論』의 酒風에 관한 서술에는 漏風의 특징적인 증상인 食則汗出과 口乾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病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病名으로 飲酒와 관련된 病임을 짐작하게 되며 澤瀉, 朮 등으로 구성된 治方과 症狀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飲酒가 原因이 된 內傷濕熱病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5. 漏泄 및 漏風, 泄風에서 多汗出하면서 惡風하는 것은 腠理의 開合에 基質의 病變이 생긴 것으로, 이는 外感 邪氣가 熱化되어 筋肉의 血分으로 들어감으로써 筋肉이 뻣뻣해지고 탄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解肌하는 石膏, 葛根과 더불어 筋肉의 血分에 박혀있는 熱을 驅逐하는 黃芩, 柴胡 등을 써야 筋肉의 탄력성이 온전히 회복되어 四肢나 體幹에 시리고 저린 後遺症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6. 本 論文의 臨床例도 産後風으로 來院한 患者 거니와, 産後 婦人에게서 이와 같이 多汗出하고 惡風하며 四肢나 體幹이 시리고 아픈 症狀을 자주 볼 수 있다. 妊娠, 出産을 겪으며 血分의 變化가 極甚하므로 肝이 主하는 筋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産後風 본래의 病理가 있으나, 同一한 症狀을 漏泄 및 漏風, 泄風證으로도 認識하여 보다 더 精巧한 治法을 구사함으로써 治療律을 높이고 治療期間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때 産後 婦人의 證이 앞에서 설명한 漏泄 및 漏風, 泄風의 證과 맞아 야 함은 물론이다.

7. 앞서 살펴본 여러 症狀 및 病理機轉, 治法, 適應證 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漏泄 및 漏風, 泄風의 本質은 陽明病 自汗·惡風證이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류정아, 장우창, 정창현.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설명모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p.66.

<단행본>

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5. p.119.
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出版部. 1981. p.174, 157, 158, 169. pp.157-158.
3.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編. 原本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1. p.125.
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57.
5. 한글학회 지음. 우리말 큰사전 3. 서울. 어문각. 1992. p.4699.
6. 李泰浩 編著. 東醫四象診療醫典. 서울. 행림출판. 1990. p.248.
7. 裴秉哲 編. 標準 臨床方劑學. 서울. 成輔社.

1995. p.70, 135, 443.

8. 임진석 정리. 溫病學處方解說集. 경기도 고양시. 대성의학사. 2002. p.4.
9.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대성문화사. 1992. p.271.
10. 劉完素 撰. 黃帝素問宣明論方.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上.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73.
11. 張璐.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460-461.

<전자 매체>

1.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경기도 성남시. Copyright © NHN Corp.2009. 매머드[mammoth]항목, 냉동인간[冷凍人間]항목.
2. WHOSIS(WHO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 WHO. 2008. Life expectancy at birth(years) both sexes.